

이야기판과 서사적 정체성의 역학 관계

— MBC FM 『라디오 여성시대』를 중심으로 —

김근호*

〈차 례〉

1. 라디오 언어 문화에 대한 서사교육적 접근
2. 라디오 이야기판의 서사적 소통 방식
 - 1) '다시 말하기'로서 서사적 중개
 - 2) '메타 서사화'를 통한 경험의 공유
 - 3) 노래를 통한 이야기 풀기와 매듭짓기
3. 라디오 이야기판에서 '서사적 정체성'의 의미
 - 1) 기억의 복원을 통한 정체성의 확인
 - 2) 이야기 치유의 방법으로서 서사적 추론
 - 3) 자아의 확장과 서사 문화의 현동화
4. 자아의 이야기를 넘어 타자의 지평으로

1. 라디오 언어 문화에 대한 서사교육적 접근

이 연구는 라디오 매체의 언어 문화를 서사교육적 차원에서 다룬다. 특히 이 연구는 이야기판의 형성과 이를 통해 가능한 '서사적 정체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국어교육은 언어교육이고, 언어교육은 언어가 갖는 정체성 형성의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야기판이라는 언어적 소통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서사적 정체성(narrative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critik7@freechal.com

identity)'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런 목적을 위해 사연(story) 중심의 라디오 프로그램의 전통을 확립한 『라디오 여성시대』(MBC FM, 매일 오전 9시 5분~11시 방영)¹⁾를 대상으로 이야기판과 서사적 정체성의 역학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최근 현대 서사학에 대한 관심의 증폭과 맞물려 서사교육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어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견인할 수 있는 서사교육의 가치와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탄력을 받고 있다.²⁾ 그러나 서사교육에 관한 논의의 대강은 서사 일반에 대한 관심을 특정 문학 장르에 소급해서 논의하고 있는 편이다. 이를테면, 소설을 대상으로 서사 일반을 논의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언어 활동의 국면은 그 내용과 목적, 그리고 방식에 따라 매우 폭넓으며, 그 때문에 국어교육의 장(場)에서는 그 다기한 양상을 폭넓게 다루어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서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사교육은 서사 문화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서사 문화는 이야기를 통한 사람들의 연대와 공동체 형성이라는 문제와 긴밀한 관련을 지닌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복수의 서사 주체들이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심리적 연대를 이루어가는 국면을 서사 문화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문제를 교육의 장에서 고려해본다면, 복수의 학습 주체들이 이야기를 생산하고 이를 소통하는 장면을

1) MBC FM 『라디오 여성시대』는 올해로 30년이 넘는 장수 프로그램이다. 1975년 4월 임국희가 진행을 맡은 「11시의 희망음악」으로 시작해 이종환, 봉두완, 이효춘, 정한용, 손숙, 김승현, 전유성 등이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아왔다.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프로듀서도 밝힌 바처럼, 잡담을 지양하고 진정성이 묻어나는 삶의 이야기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윤영미, 「30돌 맞은 여성시대 '서민의 등굣길'로 자리잡다」, 《한겨레》 2005년 11월 10일자 참조) 이에 이 연구는 『라디오 여성시대』를 삶의 진정성이 살아 있는 라디오 서사 문화의 대표적 현상이라고 보아 연구 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본 연구자는 이 프로그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다시듣기'를 활용하였다.

<http://www.imbc.com/broad/radio/fm/womenera/index.html>.

2)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성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우한용 외(2001), 『서사교육론』, 동아사이아 : 임경순(2003), 『국어교육학과 서사교육론』, 한국문화사.

상정해볼 수 있겠고, 바로 이를 ‘서사 문화 만들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이야기판과 서사적 정체성의 역학 관계를 따져보고자 한다.³⁾

여기서 이 연구의 핵심 개념인 ‘이야기판’과 ‘서사적 정체성’을 검토해보자. 우선 이야기판이란 이야기를 통한 소통 현상이 일어나는 장(場)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야기가 있고, 이를 서술하는 화자가 있고, 듣는 청자가 있는 상황, 그리고 이에 덧붙여 하나의 이야기를 복수의 주체들이 공유하는 의미 공동체를 이야기판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사적 정체성’은 ‘이야기하기(storytelling)’라는 언어 수행의 경험과 그 내면화가 순환하면서 형성되는 정신적 자질이다. 이야기의 연대 속에 서사 주체들은 자기 이해와 세계 이해를 키워나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계를 재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하는 심리적 자질이 ‘서사적 정체성’이다. 이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소통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서사적 정체성’은 개인성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성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가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언어는 인간의 자기 이해와 인간 사이의 상호 이해를 위해 동원되는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이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우리의 정체성 형성 작업을 위한 자원으로 이용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그것은 문화로 자리 잡게 되고, 그 문화에 자

3) 이 연구가 라디오라는 전과 매체를 다루는 만큼, 국어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의 현황 역시 참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어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연구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신문과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 등의 시각 중심의 매체에 몰려 있다. 언어 활동은 ‘말하기-듣기-읽기-쓰기’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청각 중심의 매체에 대한 연구가 보강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여기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어교육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논의의 성과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박인기 외(2003),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제2판)』, 삼지원 ; 우한용 외(2003), 『신문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출판부 ; 김대행 외(2004),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출판부 ; 정현선(2004),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역락 ; 우한용 외(2006), 『인터넷 시대의 글쓰기와 표현교육』, 서울대출판부.

신이 함께 하고 있다는 실감은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갖도록 해준다. 언어는 일단 도구적이지만 그 도구성을 초월하여 인간의 문화적 능력을 형성하는 힘을 갖는다.

따라서 서사적 정체성이란 인간의 성장과도 맞물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이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게 하는 의도적인 기획이라는 점에서, 서사적 정체성의 형성을 국어교육의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라디오 여성시대』를 대상으로 이야기판과 서사적 정체성의 역학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교육 내용이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보다는 라디오 이야기판의 구조와 서사적 정체성의 역학 관계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서사교육의 한 가지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논의를 국한하고자 한다.

2. 라디오 이야기판의 서사적 소통 방식

이 장에서는 『라디오 여성시대』를 대상으로 전파 매체가 형성하는 이야기판의 특성을 서사적 소통의 차원에서 살피고자 한다. 라디오의 매체적 특질이 서사적 의사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짓는가 하는 점이 여기서 주안을 두는 부분이다.

라디오는 청각 중심의 대중 매체이다. 오늘날 시각 중심의 텔레비전에 비해 사회적 입지가 많이 좁은 편이지만, 라디오 역시 집에서 부엌일을 하는 주부나 택시나 버스를 모는 기사들에게는 중요한 오락거리요 정보의 원천으로 자리하고 있다. 시각 중심의 매체인 텔레비전은 영상의 강력한 고정성 때문에 인간의 상상력을 차단하는 편이지만, 청각 중심의 라디오는 인간의 상상력을 최대한 확장할 수 있다. 라디오는 소리로써만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청각적 메시지를 듣고 머리 속에서 영상을 펼쳐보는 것은 청취자의 몫이다. 물론 이 점은 실감이 약하다는 단점도 갖지만, 역으로 라디오가 청취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을 시

사하기도 한다. 또한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의 성격이 가장 민주적이라는 점도 들 수 있다. 『라디오 여성시대』 역시 이상에서 기술한 라디오 매체의 특성을 갖고 있다. 청취자의 사연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한편,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디오 여성시대』는 요일별로 편성되어 있다. 매일 방송되는 「일반 사연」 코너를 기본으로 하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굳세어라, 금순아!」, 화요일의 「세대극복 프로젝트 '요요」, 수요일의 「장용의 단필충」, 목요일의 「여자는 왜?」, 금요일의 「관계의 위기」, 토요일의 「사연 한 스푼, 노래 두 스푼」, 마지막으로 일요일의 「불멸의 길다방」이 각각 차별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를 볼 때,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특히 여성 청취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취자의 사연이 가장 활발하게 소통되는 토요일 방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요일별 코너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토요일 방송분이 청취자의 사연 중심으로 짜여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2006년 4월 22일 토요일에 방송된 『라디오 여성시대』를 대상으로 이야기판의 서사적 소통 방식을 살펴본다.⁴⁾

1) '다시 말하기'로서 서사적 중개

『라디오 여성시대』의 진행자인 양희은과 송승환은 청취자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편지 중에 선발된 몇 편을 읽는다. 마치 일종의 문예 공모와 당선작 발표의 형식 같은 것이다.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면서 청취자의 사연을 읽는다. 각 사람이 사연을 읽고 나면, 그 사연에 대한 이런

4) 2006년 4월 22일 토요일 단 하루분의 방송을 대상으로 이야기판과 서사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는 일이 무리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라디오 여성시대』의 방송 편성 방식이 확고한 편이고, 방송의 내용과 방식이 일정하다는 점에서, 매일 그리고 주마다 반복되는 방송 모두가 대표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루분의 방송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저런 말을 나누면서 사연에 대한 논평과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놓는다.

양희은 : 네, 오늘 첫 사연입니다. 전남 나주시 성북동 최옥자씨 사연.

송승환 대독 :

〈성심으로 고객을 왕으로 모시면 되지요〉

요즘은 저는 몸이나 바쁘답니다. 변변한 직장이 없던 남편이 얼마전에 집 앞의 부동산 중개사를 개업해서 지금은 그 분야로 열심히 뛰고 있어요. 저도 집에서 살림만 하기에 남편과 아이들 보기 부끄럽고 무능한 아내란 소리 듣기 싫어서 지금은 남편의 가게에서 일을 돕습니다.

(...중략...)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그 서비스 정신으로 저는 꼭 오토바이 배워서 남들 보다 특별한 우대를 하려고 해요.

우리 가게를 찾아주셔서 만족한 매매성사를 이루시는 고객들께 항상 복이 그득그득 하길 바라면서요.

위의 인용처럼 진행자 양희은과 송승환은 선택된 사연을 읽는다. 그들은 청취자의 경험담을 대신 읽어가면서 청취자들에게 들려준다. 즉, ‘구술 연행(oral performance)’인 셈이다. 이들은 자신의 체험이 아닌 남의 이야기를 대신 읽어준다는 점에서, 일종의 서술자(narrator)라 할 수 있다. 소설에서 작가와 서술자가 구별되는 것처럼 이야기의 제공자와 방송 진행자가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이다. 현실적 서술자의 존재는 『라디오 여성시대』와 같은 사연 중심의 라디오 이야기판의 특성이 된다.

크게 보면, 서사란 일종의 ‘다시 말하기(retelling)’이다.⁵⁾ 이는 일차적으로 시간성과 함께 서사 주체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이다. 즉, 스토리의 시간과 담화(discourse)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또 서사의 본질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서술자가 있고, 그에 의해 이야기가 중개된다 점 때문인 것이다. 표나게 드러나든 숨어있든 서술자(narrator)의 존재는 서사물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따라서 서사물은 궁극적으로 보면

5) Steven Cohan & Linda M. Shires, *Telling Stories : A theoretical analysis of narrative fiction*, 임병권·이호 역(1997), 『이야기하기의 이론』, 한나래, 124쪽.

‘다시 말하기’의 담화(discourse)라고 할 수 있다.

『라디오 여성시대』는 이 서사적 중개자, 즉 ‘다시 말하기’의 서술자가 존재하는 이야기판으로서, 현실적 타자에 의해 이야기가 중개되는 특성을 보인다. 진행자는 원 이야기의 주체와 다른 청취자들을 잇는 가교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진행자와 같이 현실적 타자로 존재하는 서술자는 이야기를 객관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진행자는 다양한 시공간의 서사 주체들이 각각의 시선과 목소리를 보편화하고 일반화하는 서사적 통로인 셈이다. 이는 경험의 공유라는 문제로 연결된다.

2) ‘메타 서사화’를 통한 경험의 공유

서사의 총층적인 소통이 사연 중심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일어나는 소통 현상의 특징이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서사의 질서에 개입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 이야기판에서의 서사적 소통은 단선적이지가 않고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우선 『라디오 여성시대』의 다음 대목을 보자.

양희은 : 야~! 참. 그렇군요. 요새는 모든지 할려면 그저 외모! 겉모습이 일단 뽀지르르해야 되요. 근데 사실, 이런저런 정보를 총합해서, 고객한테 정말 그 사람 형편에 맞는 미평한 곳을 소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송승환 :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부동산 중개사’라는 말을 쓰기 전에...

양희은 : 복덕방!

송승환 : (거의 동시에) 복덕방. 그곳에는 늘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장기 두시고...

양희은 : 네. 장기 두고 계시고.

송승환 : 할아버지께. “여기 빈집 나온 거 있어요?” 하면, “어! 몇 식구여? 음, 따라와 봐.” 그러면, 뒤 따라가고. 그러면 “이 집 주인 아줌마가 참 착해...” 이러면서 그러던 것이 이제 부동산 중개사로 바뀐 지도 꽤 오래 됐습니다만, 또 이 시설, 자동차, 서비스 등 사실

무시 못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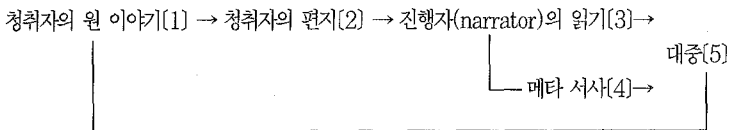
양희은 : 네. 무시 못해요. 그러나 원론적으루 정말 그렇게 다 갖추지 못할 형편, 아니 다 갖추 형편이면 왜 안 갖췄겠어요? 그런데, 갖추지 못한다면 성심성의껏 정말, 그 집에만 들어가면 좋은 일만 생기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송승환 : 차는 없고, 후미진 골목에 계시지만, 손님을 왕으로 모시는 서비스 정신을 갖고 계시니까 하하!! 그 정신을 잘 살려나가시면..

양희은 : 네. 영업을 연구하시는 분이 “한손님이 250명의 손님이다.” 이ردة요.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의, 만약에 제가 시작이라면, ‘어디가서 뭘 하니깐 참 좋더라고’ 송승환씨한테 얘기하잖아요.

송승환 : 그럼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양희은과 송승환은 청취자의 편지를 읽고 난 후,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유사한 경험담을 털어놓는다. 이는 원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 가는 모습이다. 이를 이름하여 ‘메타 서사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 따라서, 『라디오 여성시대』의 서사적 소통 방식은 다음처럼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도식을 보듯이, 청취자들은 자신의 체험을 원 이야기의 형태 ((1))로 간직하고 있다가 관련된 사연을 공모할 경우 편지의 형태((2))로

6) 이 연구에서 사용한 ‘메타 서사’란 용어는 삽입된 서사에 대해 말하는 서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메타 서사화는 이러한 이야기를 만드는 언어 활동을 일컫는다. 이런 논리에 따라, 『라디오 여성시대』에서 청취자가 올린 사연을 두고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런 저런 논평을 하는 등 이야기를 생산하고 소통을 촉진하는 언어 활동을 두고 메타 서사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메타 서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했다. Jeremy M. Hawthorn(2002), *A Glossary of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4th Edition, 정정호 외 역, 『현대 문학이론 용어사전』, 동인, 428쪽.

가공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다. 그런 후 그 편지가 경쟁을 뚫고 선택 되면,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는 그 편지를 ‘수정 없이’ 그대로 읽는다.〔3〕 하지만 그러한 읽기는 사연을 대신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원래 사연의 주체인 청취자의 목소리를 대행하는 것이면서 진행자 자신의 목소리를 가미하는 행위도 된다. 경험 자아는 청취자에 해당되지 만, 서술 자아는 청취자의 역할이면서 프로그램 진행자의 역할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술 자아는 이중성을 띠게 된다. 이 이중성은 진행자의 담화가 가미되면서〔4〕 보다 뚜렷하게 현실화된다.

이처럼 라디오 이야기판에서 청취자의 경험은 라디오를 통한 서사적 소통의 세계를 여러 겹 거치면서 굴절된다. 그 과정 중 특히 진행자의 메타 서사는 사연의 주체를 포함해 청취자 대중에게 하나의 공유된 경험의 세계로 이해되면서 이를테면, ‘서사적 공감(narrative sympathy)’을 형성한다. 이처럼 서사의 중층 구조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주체들의 공감 형성을 촉진하고 극대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3) 노래를 통한 이야기 풀기와 매듭짓기

라디오 방송은 청각 중심의 매체답게 음악 방송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사연 중심의 라디오 방송에서 음악은 약방의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며, 사람들의 정서를 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사연을 듣고 공유하는 『라디오 여성시대』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노래가 사연과 긴밀한 연관을 지니며, 청취자들의 정서를 추억의 세계 속으로 안내한다.

양희은 : 3, 4부에는 저희가 〈사연 한 스푼, 노래 두 스푼〉. ‘소풍’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죠? 소풍에 얹힌 여러분들의 예기도 듣고 또 청해주신 노래도 듣는 사연 한 스푼, 노래 두 스푼이 진행됩니다. 변진섭씨의 노래 「새들처럼」을 들려드리면서 잠시 후 3부 약속드립니다. (노래 시작)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러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나는 노래하네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퍼붓는 소나기 새찬 바람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희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면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이하 생략)

가수 변진섭의 「새들처럼」의 노래 가사는 ‘소풍’이라는 주제를 환기한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늘 품고 있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욕구를 확인시켜주는 가사 내용은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기제로 작용한다. 위의 인용에서도 보듯이, 노래와 사연의 주제는 관련성을 지닌다. 앞으로 전개될 사연의 전체적인 주제와 연결되는 노래를 들려주는 것은 청각 중심의 매체인 라디오가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처럼 『라디오 여성시대』는 서정을 바탕으로 한 노래를 서사적 세계의 한 복판에 위치시킴으로써 작은 단위의 몇몇 이야기를 더욱 큰 이야기판의 전체적 분위기로 엮어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 역시 청취자가 사연을 올리면서 희망곡을 함께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노래는 청취자의 사연을 다시금 풀어가고 매듭짓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방송 진행상 잠시 쉬는 차원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방송이 철저하게 플롯화된 구성물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노래를 휴식의 차원으로 볼 수만은 없다. 그 날 설정된 주제에 따른 이야기의 분위기가 있고, 이것이 이야기판의 맥락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서사 속에 서정을 이입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사 속의 서정의 이입은 공감의 확대를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3. 라디오 이야기판에서 '서사적 정체성'의 의미

이야기판에서 서사적 정체성은 서사 주체가 경험의 공유를 통해 비슷한 삶의 질서 속에 놓여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생겨난다. 자신의 경험이 사적인 기억으로만 잠재하지 않고 이야기하기를 통해 남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남 역시 자신과 비슷한 체험을 하고 있다는 공감을 통해 집단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정체성으로서 리코르 식으로 말한다면 '공유적 자아로서의 정체성(*identité comme ipséité*)'에 해당한다.⁷⁾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를 넘어 우리로 나아가는 방향 감각이 자아의 내면에서 형성될 때 서사적 정체성은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아와 타자의 상호주관적인 관계 속에서 자아에 대한 이해가 가속화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세계에 대한 이해로 승화되는 과정을 통해 서사적 정체성은 활성화된다. 이는 한 개인에게는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겹치는 과정에서, 그리고 넓게는 나와 남이 함께하는 삶의 연관 속에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데서 획득하게 되는 심리적 자질이다. 이 때문에 서사적 정체성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성격을 띤다. 인간은 시간의 질서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구축해가기 때문이다. 서사적 정체성은 인격화된 주체의 심리적 자질인바, 현대 사회에서 분열되고 단절된 인간 의식의 사물화를 극복하는 교육적 가치를

7) 폴 리코르는 자아란 스스로 인지될 수 없는 것으로 항상 문화적·상징적 매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타자성이 배제된 데카르트의 자아관을 비판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그는 '자기 동일적 정체성(*identité comme même*)'과 '공유적 자아의 정체성(*identité comme ipséité*)'을 구별한다. 전자는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관련되는 반면, 후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관련된다. 그는 특히 두 번째 의미의 정체성을 하이데거의 현존재(*Dasein*) 개념과 연관지어 설명한다. (Paul Ricoeur, "L'identité narrative", 김동운 역(1997), 「서술적 정체성」, 『현대서술이론의 흐름』, 솔 참조) 이 연구에서 다루는 이야기판에서의 '서사적 정체성'은 이야기를 하고, 듣고, 나누는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을 뜻하므로, 바로 공유된 자아의 정체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낼 수 있다.

그렇다면, 라디오 이야기판이라는 시·공간의 연대 속에서 서사적 정체성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는 『라디오 여성시대』처럼 청취자의 사연 중심 프로그램이 갖는 효용성을 따지는 질문이다. 이 연구가 서사교육의 국면을 전제하는바, 이 질문은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이야기판의 속성이 교육으로 전이될 수 있는 지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자기 체험을 전파매체를 통해 풀어놓는 이야기하기 행위가 갖는 의미를 따져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기억의 복원을 통한 정체성의 확인

자기 체험에 기반한 이야기하기는 기억을 되살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라디오 여성시대』에 올리는 편지, 즉 사연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기억의 서술물들이다. 따라서 기억을 되살려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를 읽고, 다시금 말하고, 듣고, 하는 등등의 행위는 기억의 세계 속에 자아(self)를 위치시키는 일이 된다. 원 이야기 주체는 말할 것도 없고, 메타 서사화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진행자와 청자들은 모두 기억의 세계로 빠져들며, 그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간다.

[3, 4부]

(커피 포트 물끓고, 커피 잔에 물을 채우는 소리)

송승환 : 네, 토요일 이 시간, 사연 한 스푼, 노래 두 스푼. 지난 추억도 듣고, 신청곡도 나누는 시간인데, 여러분들도 차 한잔 끓이셔서 드시면서, 노래도 듣고 사연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주제가 소풍이죠?

양희은 : 소풍! 이게 또 세대 차이가 많은 행사죠.

송승환 : 아니 오늘 1부에 짬질방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풍장소 짬질방! 하하하!

양희은 : 일단 그... 무엇을 들고 가느냐도 세대 차이가 나고, 어디를 가느냐도 차이가 나고,

뭐 요즘은 놀이 동산에도 많이들 간데요. 삶은 달걀 하나에 너
무 행복했던 세대가 있는가 하면, 바나나 하나 들고 가던 최고
의 소풍이었던 때도 있고, 요즘 애들이 바나나 하나 가지고서
깡충깡충 뛰는 건, 그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송승환 : 소풍가서 제일 재미있었던 게, 보물찾기였던 것 같아요. 보물찾기
에서 상품 타는 재미. 선생님들이 어디 숨겨놓은 것 찾기. 그 다
음에 장기 자랑. 뭐, 양희은 선배는 항상 뽀히셨을 것 같아요.

양희은 : 저는 모창을 많이 했어요. 유주용씨나 뭐 이런, 그 옛날 텔레비
전에 나오던 <쏘!쏘!쏘!>에 많이 나오던 분들 모창을 많이 했죠.

(말줄 : 인용자)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라디오 여성시대』 프로그램 진행자의
진술을 인용했다. 인용을 보면, 양희은, 송승환 두 진행자는 각각 이야기
주체인 ‘소풍’과 관련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다. 물론 사연을 올린
청취자의 글 역시 소풍과 관련된 과거의 추억을 소재로 하고 있다. 청취
자와 진행자 등 서사 주체 제 각각의 기억이 가치 있는 체험의 형태로 복
원되고 있는 것이다.

서사 주체들이 행하는 기억의 복원은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점차 상
상의 공간을 형성한다. 그 속에서 각자의 기억은 유사성과 차이성의 게
임을 벌이면서 공존하게 된다. 서사 주체들은 그 같은 기억의 세계를 다
른 모든 이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공
유된 자아로서 서사적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억의 복원이 어디까지나 말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말로 이루어지는 기억의 복원은 ‘나는 누구인가’ 혹은 나아가
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행위이다. 이는 삶의 연속성
과 연관성을 문제삼는 것이다. 삶의 의미 연관을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기억의 복원을 통한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그것을 타자와 함께 나누는
일이다. 따라서 기억의 복원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청취자는 단순
히 이야기의 ‘저자(author)’로 머물지 않고 이야기의 실질적 ‘주체(subject)’
로 격상된다고 볼 수 있다.⁸⁾

2) 이야기 치유의 방법으로서 서사적 추론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담을 풀어놓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자기 반영성(self-reflexivity)’을 지닌다. 이야기하는 주체와 이야기의 대상이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관적 조정이 강력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다.⁹⁾ 쉽게 말하자면, 그 누구도 자신에 관한 나쁜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에 관한 이야기만큼 자신 있게 해볼 수 있는 것도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하기는 달리 말하면 자신과의 대화이므로 억눌린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이러했고, 현재는 그 연장선에서 이러하며, 미래는 이러했으면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현실 논리를 뛰어넘는 가능 세계에 대한 ‘상상적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라디오 여성시대』의 다음 대목을 보자.

송승환 : 다음 사연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송송금씨 사연입니다.

〈소풍 댐 김밥, 사이다가 최고라구요? 아뇨...〉

며칠 전이었습시다.

딸 아이 유치원에서 놀이공원으로 소풍을 간다며 김밥과 과자 음료수를 싸서 보내라는 선생님의 안내장대로 새벽부터 일어나 꼬마 김밥을 싸고 미리 사

8) 이와 관련하여 한나 아렌트의 통찰은 참고할 만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행위와 말을 통해 세계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시작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자기 삶의 이야기의 저자이거나 연출자일 수 없다. 달리 말하면, 말과 행위의 결과물인 이야기들은 주체를 드러내지만 이 주체는 저자나 연출자가 아니다. 이야기를 시작한 누군가는 행위자와 수고하는 자의 이중적 의미에서 이야기의 주체일 수는 있으나 이야기의 저자일 수는 없다.”(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 외 역(1996), 『인간의 조건』, 한길사, 245쪽)

9) 고미영(2004), 『이야기 치료와 이야기의 세계』, 청록출판사, 65쪽.

돈 과자와 딸이 좋아하는 곰(탱이) 주스를 사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둘러 출근을 했네요. 출근하는 내내 진짜 세월 빠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하면 꾸중 듣겠지만 그래도 그때의 봄소풍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수십 년이 훌쩍 흘렀으니 말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진달래며 개나리꽃이 알록달록 곱게 수를 놓고 있을 즈음 한 친구가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중략...)

그 후로 그 친구와는 연락이 끊겼는데 지금은 그 친구도 결혼해서 소풍날이면 아이들 김밥을 싸주고 있겠죠. 아니 깻잎과 상추 거기다 현대식으로 불고기를 싸서 아이와 함께 봄소풍을 갈지도 모르겠네요. 우리에게 언제나 환한 미소로 대해주었던 그 친구 선미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밑줄 : 인용자)

청취자들이 올리는 이러한 사연, 즉 체험담은 거의 대부분 회상의 플롯을 취하는 편인데, 위의 인용 역시 그러하다. 과거를 회상하는 계기가 ‘딸 아이의 소풍’(현재)인데, 여기서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놓은 후 중학교 2학년 학창 시절로 이야기의 중심을 소급하고 있다.(과거) 그런 후 위의 밑줄 친 인용에서 보듯이 현재의 기대감을 소망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미래) 이러한 플롯은 자아의 경험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경험 자아(과거)의 세계로 서술 자아(현재)를 전이시킨다. 이것은 자아의 이야기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키게 되고, 이로써 이야기 치유의 효과를 촉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세 시간 축을 통어함으로써 현실적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 주체의 인간적 힘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간의 논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인용에서처럼 이야기를 구성하는 주체는 “지금은 그 친구도 결혼해서 소풍날이면 아이들 김밥을 싸주고 있겠죠. 아니 깻잎과 상추 거기다 현대식으로 불고기를 싸서 아이와 함께 봄소풍을 갈지도 모르겠네요.”라고 하면서 가능한 세계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브루너의 논법대로라면, 과학-논증적 사고의 반대편에 있는 서사적 사고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 가능성의 세계에 대한 서사적 추론을

해보는 것은 현실의 억압된 욕망을 해결하는 일이 되므로, 이야기 치유의 효과를 지닐 수 있다. 게다가 이는 라디오라는 대중매체를 통한 것이기에,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 프로그램처럼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자신의 이야기는 남들의 이야기와 주제를 공유한다. 그리하여 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로서 하위 단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 하위 이야기들은 보다 큰 이야기의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나의 이야기에 남의 이야기가 피드백되면서 보다 큰 이야기판의 목소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은 나만의 이야기이기를 넘어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다시 소급되는 과정이다.

이처럼 『라디오 여성시대』의 이야기판은 이야기를 통해 현실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재검점하고, 존재와 욕망을 조정하여 현실에서의 좌절 혹은 불만족을 보상한다.¹¹⁾ 이 효과는 청취자들에게 남들도 역시 자신과 같은 삶의 궤도에 놓여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더욱 강화된다. 청취자들은 이러한 이야기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서사 문화의 주체로 거듭난다. 라디오 이야기판의 청취자는 수동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라 적극적인 '독자(reader)'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미디어로 소통되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이른바 '해석 공동체(interpretative community)'의 구성원이 되는 셈이다.¹²⁾

10) 브루너는 인간의 사고는 근본적으로 과학-논증적인 사고와 서사적인 사고의 둘로 양분된다고 본다. 전자는 보편적인 진리 조건을 추구하는 반면, 후자는 사건 간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맥락 속의 사고이다. 이 둘은 변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인간이 현실을 구성해 가는 불가분의 방법론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Jerome S. Bruner(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1~43.

11) 우한용 외(2001), 『서사교육론』, 동아사이, 127쪽 참조.

12) David Croteau & William Hoynes, *Media/Society : industries, images, and audiences*, 2nd ed., 전석호 역(2001), 『미디어 소사이어티』, 사계절, 285~295쪽 참조.

3) 자아의 확장과 서사 문화의 현동화

『라디오 여성시대』처럼 개인의 이야기가 복수로 공존하면서 소통되는 프로그램은 하나의 이야기판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자아의 체험이 녹아 있는 이야기들이 연대의 고리를 형성하면서 서사 문화를 이루어낸다. 이러한 서사 문화의 형성은 청취자와 라디오 매체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하다. 라디오 매체와 그 청취자들이 협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서사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현상을 이 연구에서는 서사적 정체성의 문제로 풀어가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청취자이면서 이야기 생산자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자아의 확장’으로 부를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서사 문화의 현동화(actualization)’ 기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¹³⁾

양희은 : 주말의 여성시대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광주 쌍춘동 아이넷 스퀘에서 정은영씨가 보내주셨어요.

〈요즘 아이들에 대한 단상〉

저는 벌써 15년째 고등학교에서 신세대를 거쳐 x세대.. y세대를 맞이하는 교사입니다.

매번 초롱이는 눈빛을 하고 중딩(중학생)에서 고딩(고등학생)이 되는 아이들을 맞이하면서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대견하기도 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가끔은 고3 교실에 가서 여담으로 1학년 학생들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느새 수업이 거뭇거리는 모습으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새 애들은” 하면서 혀를 끌끌 찬답니다.

13) 본 연구자는 오늘날 뉴미디어의 시대에 서사의 수용과 생산, 비판과 창조의 통합적 활동을 서사 문화의 현동화로 보고, 이를 서사교육의 한 방향으로 주장한 바 있다. (출고 (2005), 「영화 대 영화 형(型)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미디어 서사교육적 연구」, 《문학교육학》제16호, 2005년 4월, 161~162쪽 참고)

정말 쌍둥이도 세대차이를 느낀다더니, 같은 고등학생들끼리도 요새 애들
운운할 때면 녀석들 철모르고 날뛰던 모습이 생각나 웃음이 난답니다.

(이하 생략)

(밑줄 : 인용자)

위의 인용에 밑줄 친 대목에서 보듯이, 사연을 올린 청취자는 자신의 사연이 이야기판에서 공유된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저는”이나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라는 표현에서처럼, 여러 이야기 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한편 들려주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표현 몇 개를 두고 서사적 정체성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비약의 위험을 내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표현들은 이야기 주체가 현존재의 실존을 이야기하기를 통해 성취해간다는 실감을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를 서사 문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의식의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라디오 여성시대』에서 서사 문화의 현동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의식은 청취자 자아의 이야기에 반영되고 있다. 자신의 언어 행위가 새로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은 자신의 존재를 성취하고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다. 자아(self)를 서사 문화의 한복판에 스스로 밀어 넣음으로써 서사적 실재의 구성에 참여한다는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다.

실재(reality)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자아의 확장은 다시금 청취자의 참여 의식을 복돋운다. 그리하여 이야기의 연대 속에 의미 만들기(meaning-making)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재발견할 수 있다. 세계 구성과 재발견이란 순환적 상호 작용은 라디오 이야기판이 구축해 가는 서사 문화의 실체로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¹⁴⁾ 단선적인 서사 지식의 교육이 아니라, 서사 활동을 통한 이야기 소통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언어의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기초하여 서사 문화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며, 따라서 서사교육의 장에

14) Jerome S. Bruner(1996), *The Culture of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9~20.

서 학습자간 '비계 설정(scaffolding)'의 방법론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¹⁵⁾ 즉, 학습자간의 상호 소통이 상호 평가를 내포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상호 성장이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4. 자아의 이야기를 넘어 타자의 지평으로

지금까지 이 연구는 서사교육적 관점에서 자아의 이야기가 소통되는 사연 중심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야기판과 서사적 정체성의 역학 관계를 검토해보았다. 이 연구의 핵심은 단순히 자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들이 복수로 존재하면서 형성하는 서사적 소통의 장(場), 즉 이야기판이다. 이야기를 공유하는 서사 주체들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형성되는 이야기판과 서사적 정체성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을 사연 중심의 라디오 이야기판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라디오 이야기판이 보여주는 서사적 소통 방식의 특성을 1) '다시 말하기'로서 서사적 중개, 2) '메타 서사화'를 통한 경험의 공유, 3) 노래를 통한 이야기 풀기와 매듭짓기 등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라디오 이야기판에서 '서사적 정체성'의 의미는 1) 기억의 복원을 통한 정체성의 확인, 2) 이야기 치유의 방법으로서 서사적 추론, 3) 자아의 확장장과 서사 문화의 현동화 등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추구하는 서사교육의 방향은 학습자 자아의 이야기를 넘어 나와 남의 이야기를 상호 소통시키는 교육의 장이다. 서사교육은 학습자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의미 만들기, 나아가 문화 만들기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다양한 자아 이야기의 생산도 좋지만, 교육이라는 복수의 장을 고려한다면, 학습자간 상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교사의 권능에 학습자가 예속되는 억압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시간과 품이 다소 드는 일이라도

15) Jerome S. Bruner(1996), Ibid., p. 21.

학습자간의 상호 소통을 통한 학습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국어교육의 이상형이다.*

* 본 논문은 2006. 10. 14. 투고되었으며, 2006. 11. 15. 심사가 시작되어 2006. 11. 26.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고미영(2004), 『이야기 치료와 이야기의 세계』, 청록출판사.
- 김근호(2005), 「'영화 대 영화' 형(型)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미디어 서사교육적 연구」, 《문학교육학》제16호, 2005년 4월.
- 김대행 외(2003),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출판부.
- 박인기 외(2003),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제2판)』, 삼지원.
- 신동훈(1996), 「현대 구비문학과 전파매체」, 《구비문학연구》제3집, 1996년 6월.
- 우현용 외(2001), 『서사교육론』, 동아시아.
- 우현용 외(2004), 『신문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출판부.
- 우현용 외(2006), 『인터넷 시대의 글쓰기와 표현교육』, 서울대출판부.
- 윤영미, 「30돌 맞은 여성시대 '서민의 등궤'로 자리잡다」, 《한겨레》 2005년 11월10일.
- 이홍우(2006), 『지식의 구조와 교과(개정·증보판)』, 교육과학사.
- 임경순(2003), 『국어교육학과 서사교육론』, 한국문화사.
- 장덕순 외(2006), 『구비문학개설(한글개정판)』, 일조각.
- 정현선(2004),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역락.
-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 외 역(1996), 『인간의 조건』, 한길사.
- Bruner, Jerome S.(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Harvard University Press.
- Bruner, Jerome S.(1996), *The Culture of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Cohan, Steven & Shires, Linda M., *Telling Stories : A theoretical analysis of narrative fiction*, 임병권·이호 역(1997), 『이야기하기의 이론』, 한나래.
- Croteau, David & Hoynes, William, *Media/Society : industries, images, and audiences*, 2nd ed., 전석호 역(2001), 『미디어 소사이어티』, 사계절.
- Hawthorn, Jeremy M., *A Glossary of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4th Edition, 정정호 외 역(2002), 『현대 문학이론 용어사전』, 동인.
- Ricoeur, Paul, "L'identité narrative", 김동윤 역(1997), 「서술적 정체성」, 『현대서술이론의 흐름』, 솔.
- Ricoeur, Paul, *Temps et Récit III : temps raconté*, 김한식 역(2004), 『시간과 이야기3 : 이야기된 시간』, 문학과지성사, 2004.

[연구자료]

- 양희은·송승환 진행, 『라디오 여성시대』, MBC FM, 2006년 4월 22일 방영분.
<http://www.imbc.com/broad/radio/fm/womenera/index.html>

<초록>

이야기판과 서사적 정체성의 역학 관계

—MBC FM 『라디오 여성시대』를 중심으로—

김근호

국어교육에서 요구되는 서사교육의 대상과 방법은 서사 현상이라는 폭넓은 사태로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서사 현상은 본질적으로 소통을 전제한다. 그런 점에서 서사적 소통은 이야기판을 형성하며, 이 속에서 서사적 소통을 수행하는 주체들은 서사적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언어에 의해 형성되는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서사 문화의 국어교육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목적 의식을 바탕으로 이야기판과 서사적 정체성의 역학 관계를 따져보았다. 사연 중심의 프로그램인 『라디오 여성시대』를 대상으로 청취자와 진행자의 관계 속에서 서사의 생산과 소통 그리고 수용을 서사적 소통의 맥락으로 다루어 내었다. 우선 『라디오 여성시대』를 대상으로 전파 매체가 형성하는 이야기판의 특성을 서사적 소통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라디오 이야기판이 보여주는 서사적 소통 방식의 특성은 1) '다시 말하기'로서 서사적 중개, 2) '메타 서사화'를 통한 경험의 공유, 3) 노래를 통한 이야기 풀기와 매듭짓기 등이다. 이러한 소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서사적 정체성'의 의미는 1) 기억의 복원을 통한 정체성의 확인, 2) 이야기 치유의 방법으로서 서사적 추론, 3) 자아의 확장과 서사 문화의 현동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 개인의 소중한 사연을 라디오 매체를 통해 공유하는 일은 서사적 실재(reality)를 구성하는 행위이다. 이는 자아를 확장하여 타자의 지평으로 넓혀가는 서사 현상이다. 이야기의 연대 속에 서사 주체들은 의미 만들기를 수행하는데, 그러한 과정 중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계를 재발견할 수 있다. 이 같은 서사적 소통 현상은 일종의 '서사 문화 만들기'로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학습자 자아의 이야기를 넘어 나와 남의 이야기를 상호 소통시키는 교육의 장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국어교육에서 요구되는 서사교육의 방향은 학습자간의 상호 소통을 통한 의미 만들기, 나아가 서사 문화 만들기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다양한 자아 이

야기의 생산도 좋지만, 교육이라는 복수의 장을 고려한다면, 학습자간 상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핵심어】 국어교육, 서사교육, 서사 문화, 이야기판, 서사적 정체성, 경험, 기억, 자아, 타자, 소통.

<Abstract>

**The Dynamic Relation between Narrative Field and
Narrative Identity**

— Centering on the Radio Program 'Radio Yeosungsidae'(MBC FM) —

Kim, Keun-ho

The objects and the methods needed in narrative education which is important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to the broad scope of narrative phenomenon. The narrative phenomenon presupposes communication essentially. Therefore, the narrative communication builds the narrative field, so that the narrative subjects in this field will obtain the narrative identity. This tells us that man isn't only the subject using language but the one builded by it.

So, this study explores the dynamic relation between narrative field and narrative identity through analyzing the radio program 'Radio Yeosungsidae'(MBC FM), which is acknowledged as the best radio program dealing human stories. The narrative production, communication, consumption is the heart of this paper. The mechanism of the narrative field on the radio follow these. First, narrative mediating as retelling. Second, holding experience in common through making meta-narrative. Third, opening and knotting the story by means of songs related. This narrative communication means these three useful points. First, identifying through recovering one's memory. Second, reasoning as a method of narrative therapy. Third, the actualization of narrative culture through extending one's ego in stories.

Above facts show that the sense of solidarity in narrative community gives us the narrative reality. The narrative phenomenon that a narrative ego communicates others helps us to rediscover our living world, and suggests the indication of promoting the narrative communication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field. This is the most important

conclusion in this study.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narrative education, narrative culture, narrative field, narrative identity, experience, memory, ego(self), other, communication.